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본 충남지역 기업경기

박 창 귀 I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

### <요 약>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본 충남지역 기업경기

#####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최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 3월 대전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가 83으로 전월(76)보다 7p 상승하였으며, 4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도 88로 전월(81)보다 7p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 일간지는 “지역 제조업 4월 경기 전망 ‘好好’”라고 보도하여 경기회복 분위기를 북돋았다. 그러나 다른 일간지는 “대전·충남 제조업 체감경기 아직도 썰렁”이라고 보도하였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무엇인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액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가령 통계청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생산액을 집계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1년 전의 수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이며 동 지수는 0~200의 값을 갖는다. 동 지수가 100을 넘어서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수에 비해 많음을,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00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응답에 하향편의가 있음을 반영하므로 해석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 2014년 3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동향: 개선

업황BSI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후 조사 기업의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 지수화한 것이다. 2014년 3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를 보면 84로 전월(77)보다 7p 상승하였다. 통상 지수가 100이면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업황BSI 84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업체 수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지역 기업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기가 좋았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수가 100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충남지역 기업경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수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수치, 즉 전월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남지역 제조업의 어려움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도 업황BSI가 전월보다 5p 상승(69→74)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서는 아직 호전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4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전망: 호전

기업가에게 다음 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산출한 것이 업황전망BSI다. 4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89로 전월(82)보다 7p 상승하였다. 다음 달 기업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4)은 전월보다 14p, 중소기업(91)은 5p 각각 상승하여 대기업의 호전 폭이 더 컸다. 한편 충남지역 비제조업의 4월 업황전망BSI는 75로 전월(74)보다 1p 상승에 머물렀다. 제조업에 비해 경기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3월 경영애로사항: 감소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사항의 경우는 자료사정상 대전과 충남을 함께 설명한다. 금년 3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2.5%), 불확실한 경제상황(11.9%), 수출부진(11.9%) 등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지난달과 비교하여 보면 내수부진은 다소 줄어든(-2.9%p) 반면 경영애로가 없다는 응답 비중은 상당히 늘어(+4.8%p)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응답 비중도 높아져(+3.0%p) 영업 여건의 어려움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 1.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최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 3월 대전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가 83으로 전월(76)보다 7p 상승하였으며, 4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도 88로 전월(81)보다 7p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 일간지는 “지역 제조업 4월 경기 전망 ‘好好’”라고 보도하여 경기회복 분위기를 북돋았다. 그러나 다른 일간지는 “대전·충남 제조업 체감경기 아직도 썰렁”이라고 보도하였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무엇인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액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가령 통계청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생산액을 집계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1년 전의 수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경영자 혹은 관계자한테 해당 기업의 영업 상태를 묻고 이렇게 묻은 결과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지수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의 현재 경기 수준 등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기에측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를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200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가 100을 넘어서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수에 비해 많음을,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00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응답에 하향편의가 있음을 반영하므로 해석을 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 3. 2014년 3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동향

#### (1) 제조업

##### ( 업 황 )

업황BSI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후 조사 기업의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 지수화한 것이다. 2014년 3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를 보면 84로 전월(77)보다 7p 상승하였다. 통상 지수가 100이면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업황BSI 84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업체 수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지역 기업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기가 좋았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수가 100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충남지역 기업경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수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수치, 즉 전월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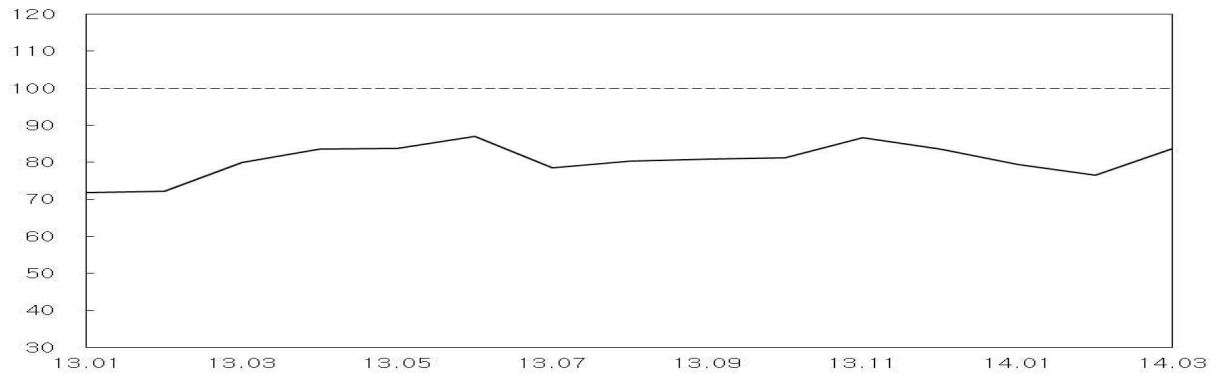
한편 충남지역 제조업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0)은 전월보다 2p상승한 반면 중소기업(88)은 8p 상승하였다. 그리고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를 넘는 수출기업(81)은 전월보다 2p 하락한 반면 내수기업(85)은 9p 상승하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 업황BSI1)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제 조 업	72	87	84	79	77	84 (81)	7 (+3)
대 기 업	86	90	73	73	68	70 (81)	2 (0)
중 소 기 업	65	86	88	82	80	88 (81)	8 (+7)
수 출 기 업	71	93	85	83	83	81 (78)	-2 (-2)
내 수 기 업	72	84	83	78	74	85 (82)	9 (+5)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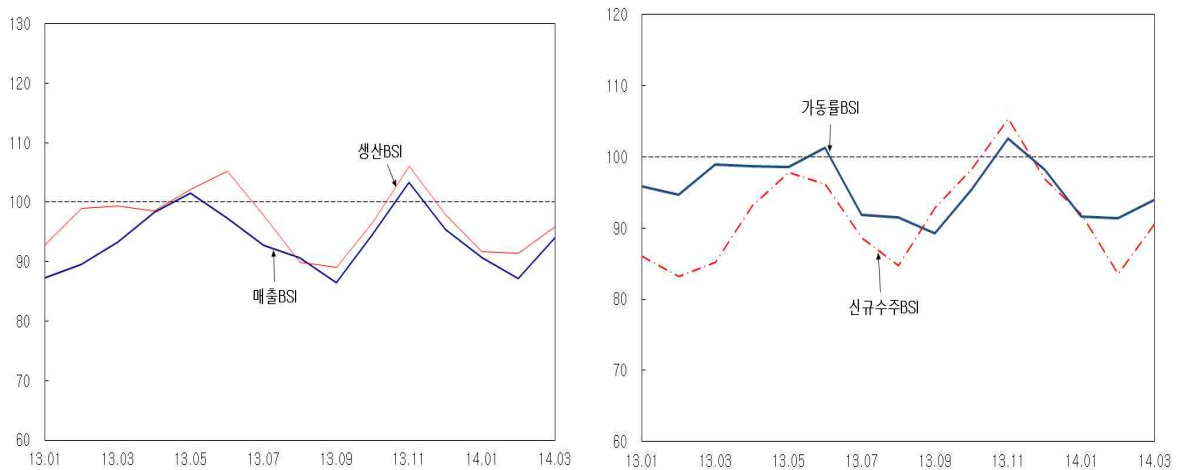
2) ( )내는 전국 기준



### ( 매출, 생산, 제품재고, 신규수주 및 가동률 )

매출BSI는 1년전과 비교하여볼 때 조사 기업의 매출이 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조사결과 매출BSI(87→94)는 전월보다 7p, 생산BSI(91→96)는 5p 각각 상승하였다. 그런데 매출BSI 상승폭이 생산BSI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재고도 일부 처분했다는 뜻이다. 제품재고BSI(110→109)를 보면 실제 전월보다 1p 하락하였는데, 제품재고BSI는 역계열로 수치가 하락하게 되면 재고가 해소된다는 뜻이다. 한편 신규수주BSI(84→91) 및 가동률BSI(91→94)는 각각 전월보다 7p, 3p상승하였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제조업의 매출, 생산 및 신규수주 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매출 <sup>1)</sup>	87	97	95	91	87	94	7
생산 <sup>1)</sup>	93	105	98	92	91	96	5
신규수주 <sup>1)</sup>	86	96	97	92	84	91	7
가동률 <sup>1)</sup>	96	101	98	92	91	94	3
제품재고 <sup>2)</sup>	103	108	114	108	110	109	-1

주 : 1) BSI =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BSI =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

### ( 설비투자실행, 생산설비수준 및 인력사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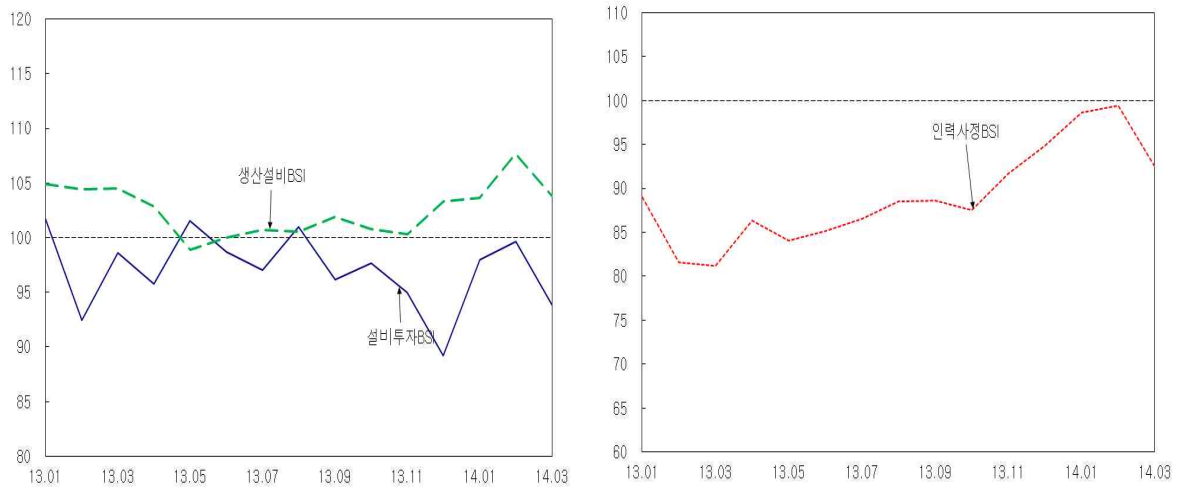
전년 동월대비 설비투자 규모를 늘렸는지 혹은 줄였는지를 조사하는 설비투자실행 BSI(100→94)를 보면 전월보다 6p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전년 동월에 비해 설비투자를 줄였다는 기업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생산설비가 과잉인지 혹은 부족한지를 묻는 생산설비수준BSI(108→104)는 4p 하락하였는데 이 또한 생산설비가 부족하다는 기업이 생산설비가 과잉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수가 많다는 뜻이다. 설비투자규모를 줄이니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한편 인력사정BSI(99→92)는 전월보다 7p 하락하였는데 이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 수가 인력이 과잉이라고 응답한 기업 수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생산설비가 부족해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

#### 제조업의 설비투자, 생산설비수준 및 인력사정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설비투자실행 <sup>1)</sup>	102	99	89	98	100	94	-6
생산설비수준 <sup>2)</sup>	105	100	103	104	108	104	-4
인력사정 <sup>2)</sup>	89	85	95	99	99	92	-7

주 : 1) BSI = 「당초계획대비 수정 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당초계획대비 수정 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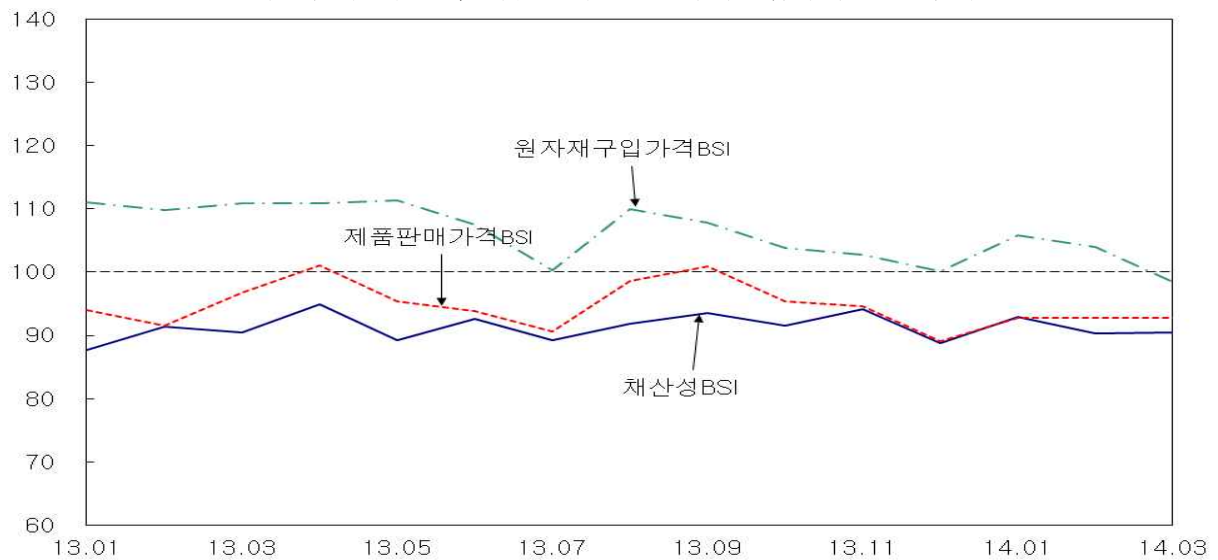
2)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



## ( 채산성 )

전월과 비교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묻는 채산성BSI는 90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다. 또한 제품판매가격BSI도 93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다. 비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판매가격이 동일하면 기업이윤도 동일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원자재구입가격BSI(104→99)는 전월보다 5p 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비용에서 환율 혹은 해외원자재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의 채산성, 제품판매 및 원자재구입가격 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채 산 성 <sup>1)</sup>	88	93	89	93	90	90	0
제 품 판 매 가 격 <sup>2)</sup>	94	94	89	93	93	93	0
원자재구입가격 <sup>2)</sup>	111	108	100	106	104	9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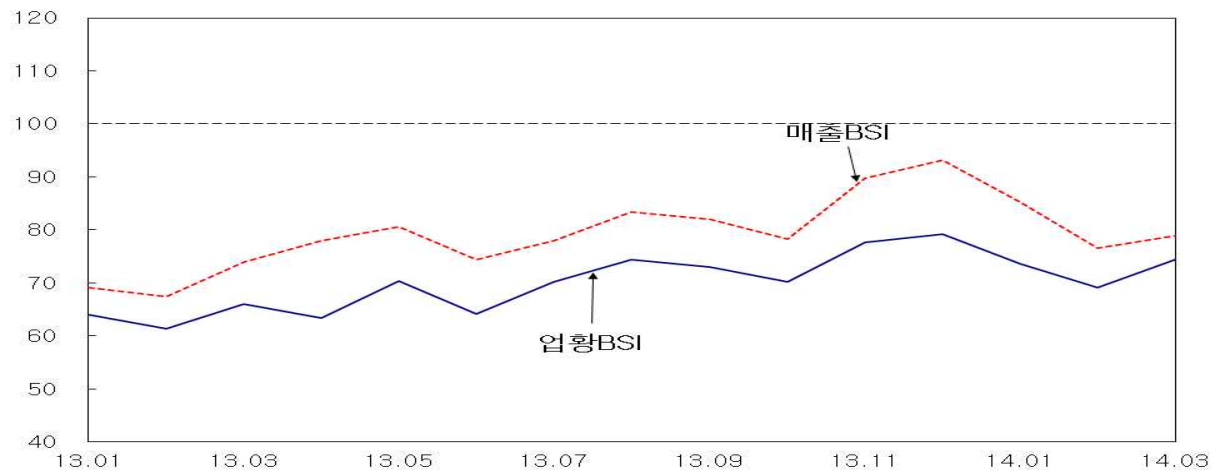
주 : 1) BSI =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BSI = 「상승」 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2) 비제조업

비제조업은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3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는 74로 전월(69)보다 5p 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서는 아직 호전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BSI(77→79) 및 채산성BSI(79→86)는 각각 전월보다 2p, 7p 상승하였다. 매출BSI가 낮은 데도 채산성BSI가 높은 것은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비용이 줄어든 데 기인할 수 있다. 한편 인력사정BSI(83→87)는 전월보다 4p 상승하였는데 졸업시즌을 맞아 인력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sup>1)</sup>	64	64	79	74	69	74 (69)	5 (0)
매출 <sup>2)</sup>	69	74	93	85	77	79 (76)	2 (-2)
채산성 <sup>3)</sup>	81	77	86	81	79	86 (80)	7 (0)
인력사정 <sup>4)</sup>	83	78	82	89	83	87 (87)	4 (-1)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BSI =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BSI =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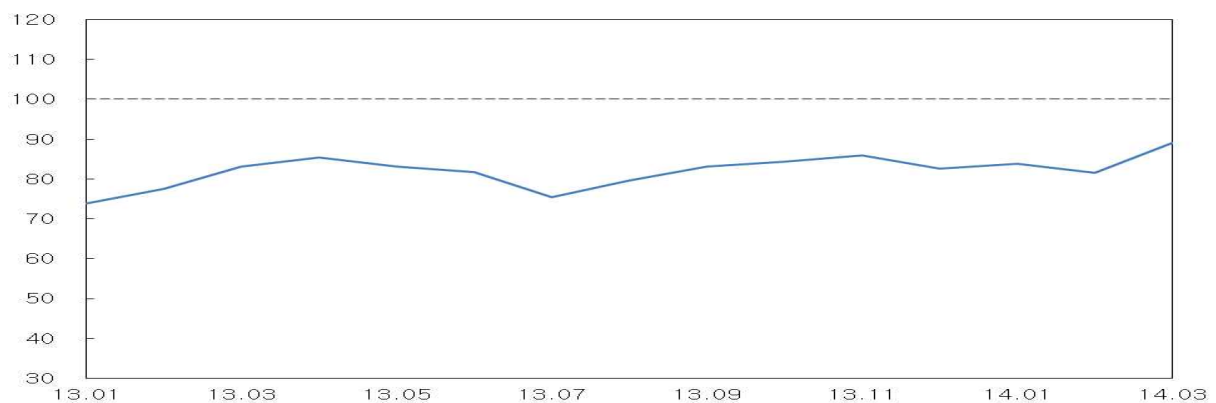
5) ( ) 내는 전국 기준

## 4. 2014년 4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전망

### (1) 제조업

기업가에게 다음 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산출한 것이 업황전망BSI다. 4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89로 전월(82)보다 7p 상승하였다. 다음 달 기업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4)은 전월보다 14p, 중소기업(91)은 5p 각각 상승하여 대기업의 호전 폭이 더 컸다. 매출액에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정의되는 수출기업(85)은 전월보다 2p, 내수기업(90)은 9p 각각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업황전망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변동폭
제 조 업	69	83	86	83	84	82	89 (86)	7 (+1)
대 기 업	89	91	76	70	77	70	84 (84)	14 (-2)
중 소 기 업	62	80	88	87	86	86	91 (87)	5 (+4)
수 출 기 업	83	81	80	87	86	83	85 (85)	2 (+2)
내 수 기 업	66	84	87	81	83	81	90 (86)	9 (+1)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 ) 내는 전국 기준

충남지역의 4월 매출전망BSI(90→95) 및 생산전망BSI(96→100)는 각각 전월보다 5p, 4p 상승하였다. 그리고 신규수주전망BSI(87→97)는 10p 상승하였다. 이처럼 생산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와 역계열인 제품재고수준전망BSI(107→102)는 전월보다 5p 하락하였다.

생산설비수준전망BSI(107→101)는 전월보다 6p 하락한 반면, 가동률전망BSI(96→101)는 5p 상승하였다. 가동률이 높아지면 생산설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니 역계열인 생산설비수준전망BSI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편 설비투자전망BSI(101→94)는 전월보다 7p 하락하여 아직은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의 매출, 생산, 신규수주 등 전망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변동폭
매 출 <sup>1)</sup>	88	103	103	95	94	90	95	5
생 산 <sup>1)</sup>	91	103	109	100	96	96	100	4
신규수주 <sup>1)</sup>	92	95	106	100	92	87	97	10
가 동 률 <sup>1)</sup>	89	100	107	99	95	96	101	5
제품재고 <sup>2)</sup>	109	102	112	111	106	107	102	-5
설비투자 <sup>1)</sup>	95	100	98	94	99	101	94	-7
생산설비수준 <sup>2)</sup>	102	99	102	103	104	107	101	-6
인력사정 <sup>2)</sup>	93	85	93	93	99	96	87	-9

주 : 1) BSI =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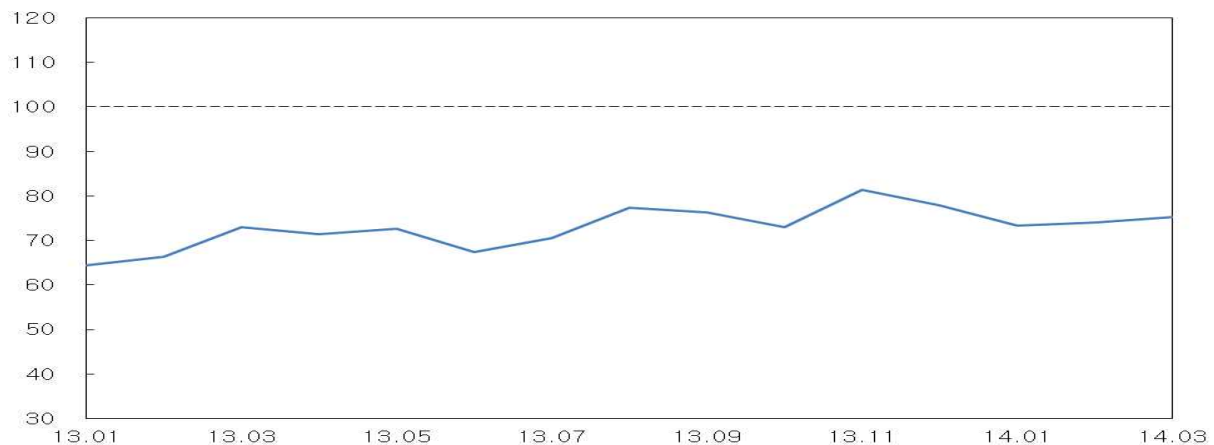
2)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BSI =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2) 비제조업

충남지역 비제조업의 4월 업황전망BSI는 75로 전월(74)보다 1p 상승에 머물렀다. 제조업에 비해 경기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매출전망BSI(75→81)가 전월보다 6p 상승하였고 채산성전망BSI(82→88)도 6p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다.

비제조업의 주요 전망BSI 추이



	2013.1월	6월	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sup>1)</sup>	69	73	81	78	73	74	75 (73)	1 (-3)
매출 <sup>2)</sup>	70	84	86	89	82	75	81 (79)	6 (-4)
채산성 <sup>3)</sup>	76	82	88	87	82	82	88 (84)	6 (0)
인력사정 <sup>4)</sup>	89	83	81	85	90	81	84 (88)	3 (0)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BSI =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BSI =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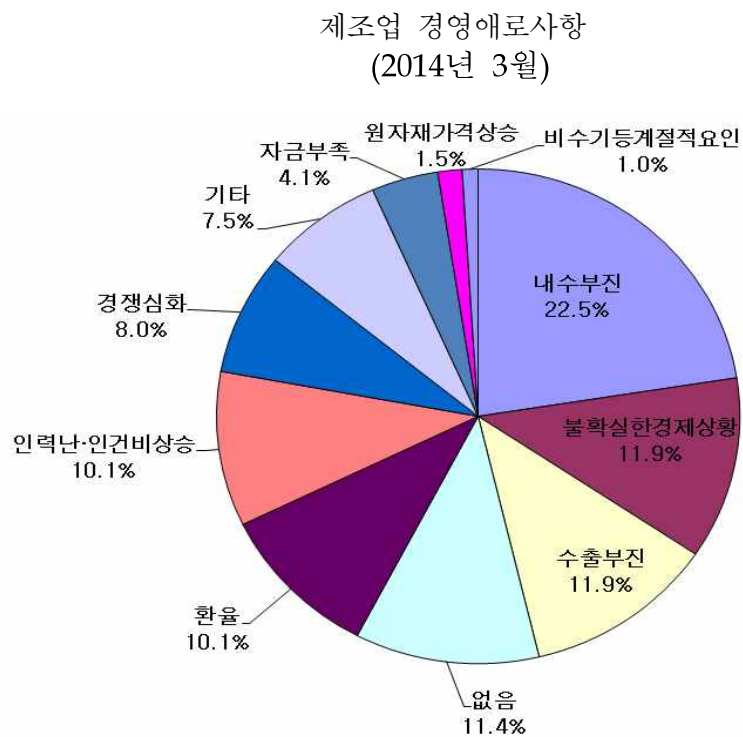
4)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5) ( ) 내는 전국기준

## 5. 경영애로사항

### (1) 제조업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사항의 경우는 자료사정상 대전과 충남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금년 3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2.5%), 불확실한 경제상황(11.9%), 수출부진(11.9%) 등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지난달과 비교하여 보면 내수부진은 다소 줄어든(-2.9%p) 반면 경영애로가 없다는 응답 비중은 상당히 늘어(+4.8%p)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응답 비중도 높아져(+3.0%p) 영업 여건의 어려움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 %p)

	2013.2월(A)	2014.3월(B)	증감(B-A)
내수부진	25.4	22.5	-2.9
불확실한경제상황	11.5	11.9	0.4
수출부진	11.2	11.9	0.7
없음	6.6	11.4	4.8
환율	12.5	10.1	-2.4
인력난,인건비상승	12.7	10.1	-2.6
경쟁심화	5.0	8.0	3.0
기타	5.8	7.5	1.7
자금부족	5.9	4.1	-1.8
원자재가격상승	1.4	1.5	0.1
비수기등계절적요인	2.1	1.0	-1.1

주 : 1) 노사분규, 생산설비 노후 등

## (2) 비제조업

금년 3월 대전·충남지역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0.2%)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고 경쟁심화(12.3%), 불확실한 경제상황(11.9%) 등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지난달과 비교하여 보면 내수부진의 비중은 상당 폭 줄어든(-7.9%p) 반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 비중은 증가하였다( +5.1%p).

###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2014년 3월)

	2013.2월(A)	2014.3월(B)	증감(B-A)
			(%, %p)
내수부진	28.1	20.2	-7.9
없음	17.3	16.1	-1.2
경쟁심화	14.1	12.3	-1.8
불확실한경제상황	6.8	11.9	5.1
자금부족	9.4	11.3	1.9
인력난,인건비상승	8.4	9.0	0.6
원자재가격상승	1.4	5.0	3.6
비수기등계절적요인	4.5	4.9	0.4
기타	7.3	4.7	-2.6
정부규제	2.6	4.7	2.1

